

"5번 레인에 서있는 수영부 에이스, 강나루에게"

안녕? 난 너의 이야기를 책 속에서 듣게 된, 너를 존경
스러워하게 됐는 어느 화생이야. 너는 어디까지나... 도무지
감잡을 수 없는 신기한 아이야!! 너는 네가 평범한 아이들과
같다고 생각하겠지만, 너는 진실하고 수영을 잘하고 친화력까지
모두 갖췄잖아. 그래서 난 네가 참 부러웠는걸? 특히,
너의 열정! 너의 수영에 대한 열정은 여름같이 활활 불타
올랐지. 이제 갑자기 궁금증이 생길거야. '내 열정은 여름 햇살
같은데, 왜 초회를 이기지 못해서 5번레인에 섰어?' 그
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너도 알고있는 것 같은데? 그래~ 그거야!
즐기지 못하고, 승리에만 몰두해서 몸도 멍달아 따라가기 버거
웠을걸? 나루야, 대회는 오로지 등만 빛나는 것 같지!!
그런데 그건 착각이야... 대회에서 2등, 3등, 4등... 같은
다른 선수가 없었더라면 등은 없었지 않을까? 그러니,
2등이건, 4등이건 다 빛난다고. 너무 자책하지 마. 6학년??
아직 기회는 많~잖아~! 그리고 네 옆에는 항상 힘이
되어주는 비타민같은 친구들과
든든한 조연가인 감독님이 있으니
걱아. 다들 저마다의 빛을
가진 소중한 아이야.



그리고..... 내가 너를 가장 낯받고 싶어졌던 뽀은 참 많아.
하지만 한 가지만 뽑자면, 너의 '진실'. 나는 항상 나의
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. 하지만 너는
나와 많이 달라.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이
안 오는 아이, 모두의 앞에서 사실을 털어놓은 진실한
아이. 그렇게 너는 '초희 수영복 사건'을 훌륭하게 마무리지을
수 있었지. 너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2위라는 자리에
도달했어. 수영은 곧, 자신과의 싸움. 넌 네 자신을 이겨낸
거라고!!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. 여름의 뜨거운
햇살 아래, 햇살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, 물속을
날아다니는 너희. 그리고 네 자신의 몸의 한계, 마음의
한계를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네 모습. 인어같이
물 속을 자유롭게 헤엄쳐나가는 미래의 수영 선수들. 이
아름다운 순간, 순간을 너를 통해 다시 한 번 보게되어서
너무 행복했던 독서, 2시간. 다시 너의 기록을 깨며,
옆 라인 상대를 이겨내야 하는 너희들을 응원하며,
이만 편지를 마쳐보도록 할게.

너의 여름 이야기, 즐거웠어!! 그럼
안녕~~! -22. 8. 4(목)-

<네 이야기가 즐거운
한 학생>

